

Sebastian Seung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세바스찬 승(Sebastian Seung)교수는 현재 뇌과학분야 학계에 떠 있는 별일 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타다. 내가 관찰한 미국 학계의 한 패턴은 이렇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낸 권위있는 학자가 일반인을 위한 책을 낸다. 그래서 그 분야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일반대중에게도 널리 알린다. 세바스찬 승 교수가 이렇다.

내가 처음으로 승교수 이야기를 들은 때는 1993년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Bell Lab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은 때. 그곳의 한국인 연구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다. 이곳서 친재로 소문난 친구가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다, 세바스찬 승이다, 이론물리 연구부에 합류한 신참 연구원이다, 등등. 나는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쳤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옆옆방으로 특하면 찾아와서 연구논의를 하는 것이었다. 이론물리 연구진이 소프트웨어원리 연구부 복도까지 와서 무슨 공동연구를 하는걸까. 내 옆옆방에는 지금 UPenn의 교수로 있는 마이클 켄(Michael Kearns)이라는 기계학습 이론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연구토론하고, 농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나는 신참 연구원으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피스 복도의 배경 음악으로 삼으며 내 일을 봤다. 모두가 오피스 문을 열어놓고 서로의 모습을 공유하는 분위기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 “Hi”하며 인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완벽한 미국인이었고 나는 그런 미국문화와 곁들며 쑥스러웠던 20대 말의 한국 청년이었다.

내가 Bell Lab에 있는 동안은 승교수와 같이 연구할 일이 없었다. 서로 개인적인 만남도 없었다. 나는 1995년 귀국했고, 승교수는 명불허전 대단한 성과를 내며 신나게 연구해갔으리라. 그러면서 근 18년이 흘렀다.

승교수는 Bell Lab을 나와 MIT Brain Science 교수로 가 있었다. 2012년 4월 나는 MIT CSAIL을 2달간 방문하고 있었다. 어느날 책방에 들렀는데 승교수의 책 [Connectome]이 신간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반갑게 펼쳐보았고 곧바로 아마존에 주문을 했다. 그리고는 여러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다. 새벽 늦게까지였다. 승교수의 TED 강연도 흥미로웠다. 뮤지컬 배우의 모습같기도 했다. 사람을 빨아들였다. MIT 방문하는 기회에 이번에는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 이메일했고 랩을 구경갔다.

Connectome프로젝트는 인간뇌의 뉴런과 시냅시스 연결 그래프를 고스란히 그려내려는 프로젝트다. 인간계놈보다 더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다. 인간뇌의 천억개의 뉴런과 각 뉴런이 다른 뉴런과 연결된 그래프관계를 일일이 그대로 그려내려는 프로젝트다. 왜 이런일을? 계놈가지고는 인간의 모든 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승교수의 슬로건은 “We Are More Than Our Genes.”

Connectome프로젝트에 컴퓨터 분야의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것은 명백했다. 나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아직은 말 뿐이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인간계산(human computation, crowd sourcing)정도의 협력은 명백하지만, 내 전공(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분석)과 연결되는 일이 될지는 불분명했다. 뭔가 협력할게 있으리라고 가정했다. 자꾸 이야기하다보면 뭔가 있으리라고 믿는다.